

# '장성의 맛' 영화를 만난다...미식관광 개발 박차



장성군(군수 김한중·가운데)과 사단법인 서울국제음식영화제가 최근 열린 영화제 개막식에서 장성 미식관광 홍보자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서울국제음식영화제 협약 '5대 맛거리' 조성, 백종원씨의 더본코리아와 '맛순'

음식문화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장성군이 이번에는 영화를 매개로 '장성 맛' 알리기에 나선다. 장성군은 최근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서울국제음식영화제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명신 장성부군수(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이강노 센터장, 정우정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음식과 영화를 통해 각국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 축제다. 장성군은 올해 5월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기간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남도음식영화토크쇼'를 열

어 서울국제음식영화제 단편 상영작 4편을 소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장성지역 먹거리 소비를 촉진하고 미식관광 홍보자원 발굴에 힘을 모은다.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서울국제음식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협력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음식 자원과 미식관광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 이후에 열린 '9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개막식을 함께 했다. 개막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전남도·장성군의 원, 농협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장성군은 민선 8기 '100만 관광객시대'를 목표로 내걸고 음식문화를 주축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성 5개 권역에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이 핵심 사업이다. 최근에는 요리 연구가 백종원씨가 이끄는 쉐더본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장성 5대 맛거리' 조성과 외식업 전문가 상담·교육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표 사찰인 백양사의 정관스님 사찰음식은 지역 안팎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이 맛의 고장 남도를 대표하는 음식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서울국제음식영화제와 업무협약이 장성 고유의 음식과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과 소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 농특산물 '배 터지게' 즐기세요

2023나주축제 연계 20~29일 '배 터지는 나주농업페스타' 나주배·쌀·한우 등 전시·홍보...전국요리경연대회 등 다채

나주시는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축제(20~29일·영산강 둔치공원) 현장에서 '배 터지는 나주농업 페스타'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나주농업페스타는 통합축제와 연계해 나주 대표 농·특산물을 총망라한 전시·판매전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나주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 한 해 풍년을 자축하고 기원하는 농업인들의 화합 행사로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나주배와 쌀, 잡곡, 한우 등 다양한 농·축산물과 가공품이 전시·홍보된다. 저렴한 가격에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한다. 나주시는 당일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무료 배송과 10% 할인권 지급 혜택을 준다. 나주배 상품종 '신화' '창조'와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신고배를 '배 터지게' 맛볼 수 있는 시

식 공간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1~12시, 오후 4~5시에는 '상생푸드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판촉 홍보전'을 열어 비대면 판매도 한다. 나주배와 한우, 흥어, 참기름 등 21개 업체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나주농업전시관과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학습단체 홍보관, 국화분재학교·호남원예고 참여 국화·야생화 전시 판매, 나주배원예농협 나주배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 23일에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 25일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각각 축제 주무대에서 열린다. 참가객들은 도시농업 텃밭 정원과 상추·배추 등 각종 심기, 농촌체험휴양마을(7곳) 체험, 떡메치기, 전통 놀이, 버·콩 탈곡 체험 등 농경문화를 즐길 수 있다. 28일 오전 10시에는 '2023년 영산강 전국요리경연대회'가 펼쳐진다. '나주의 맛을 부탁해'를 주제로 1차 서류심사를 거친 20팀이 본선에서 순맛 경연을 벌인다. 참가자들은 나주배를 활용해 1만5000원 안팎 비용으로 선보일 수 있는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한다. 대회에서는 위생·조리과정, 주제 적합성·완성도, 맛·영양성, 창의성·보급가치 등을 평가해 대상(1팀)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팀) 100만원, 우수상(2팀) 70만원, 장려상(4팀) 50만원, 참가상(11팀) 30만원 등을 준다. 수상작 조리법은 지역 외식업소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농업페스타를 계기로 나주 농업의 새로운 미래와 가치를 제시하고 전국 최고품질의 나주 농산물을 판촉·홍보해 농업인은 소득 창출의 기회로,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농업 축제로 키워가겠다"고며 "영산강에서 펼쳐지는 전국요리경연대회가 남도 음식 1번지 나주의 맛과 멋을 알리고 이야기가 있는 음식 발굴로 먹거리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담양군이 제13회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병노(오른쪽 세번째) 군수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담양군, SNS 대상 기초지자체 최우수상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서 관광정보 제공

담양군이 제13회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양질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 활동을 전개한 전국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체를 평가해 수여하고 있다. 담양군은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하며 행정정보와 자연경관, 관광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담양군 유튜브는 '담양 여행'과 '장인을 만나다', '담양의 먹거리', '담양 체험' 등 담양만의 개성있는 이야기를 감성적인 영상으로 담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군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으로 이용자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창의적인 콘텐츠와 유용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 강진 '보은산 힐링센터'서 휴식·치유를

건강 측정·가상현실 두뇌 활성화 4060 중년 감성 치유 등 다양



강진군은 이달 초부터 강진읍 남성리 보은산 일원(고성길 162)에서 '보은산 힐링센터' (사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은산 힐링센터는 청년예술상당소로 쓰이던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조성했다. 민간 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4월 종료되면서, 강진군은 같은 달부터 내부 조정 공사 등을 벌인 뒤 이달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보은산 힐링센터는 보은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방문객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체 건강 지수를 측정하고, 마음 건강 측정, 심신 이완, 신체 회복, 가상현실(VR) 두뇌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자문·전문가가 정신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심신 완화 활동은 미술 요법, 원예 요법, 운동 요법 등으로 매일 1회씩 진행한다. 분기별로는 4060 중년 감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은산 힐링센터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원 강진군수는 "힐링센터는 군민들의 힘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감염병, 각종 스트레스 등 치유가 필요한 많은 군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함평군 공무원, 자치발전 대상 '쾌거'

농어촌공동체과 김용민 팀장, 전국 공무원 중 유일 수상

함평군 공무원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받았다. 함평군은 최근 군 농어촌공동체과 김용민 팀장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공무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에게 수상하는 상이며 한국지방자치회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김용민 팀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명만 선정하는 공무원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용민 팀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민자치 실천 ▲돌머리지구 개발 ▲어촌뉴딜 300 ▲연안정비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12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 함평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김용민(왼쪽) 팀장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공무원 부문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김 팀장은 "자치발전 대상은 군민께서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 주고 보답해주시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함평군, 전남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공모사업 선정

천지영농조합법인 친환경작업장·저온저장시설 등 구축

함평군이 2024년 전라남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함평 대동면 천지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종면적 확대와 단지 집단화를 위해 생산·유통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ha 이상 친환경 농경지를 경작하고 친환경 과수·채소를 생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된 천지영농조합법인(대표 정대성)은 단호박, 양배추, 양파, 옥을 재배하는 31농가와 계약 재배해 아이클 생협과 전자상거래를 통

해 판매하고 있다. 지원시설이 완공되면 약정 농가와 생산면적은 70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하기 위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HACCP인증 친환경 작업장과 저온저장시설도 구축한다. 함평군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남도 과수·채소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지금까지 3개소가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선정사업으로는 옥, 단호박 선별작업장 및 저온저장 시설 지원, 친환경 채소 육묘장

시설하우스 등이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계약재배 면적 확대와 브랜드 상품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사업 공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화순군,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공모사업 선정

55억원 확보...공 재배 농가 기계화 촉진 생산성 향상 기대

화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했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 이번 평가는 전문평가단의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화순 천은농협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김장한우농조합법인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시설·장비 사업을 추진한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쳐 생산과 유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임광수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공 재배 농가의 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식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